잇단 사찰방화…불상파괴…종교교육 강요

훼불 보고만 있을 것인가

대전보문사 대웅전 전소…정부 미온적 수사
범종단 '종교편향 근절' 상설기구 만들어야

천안 광덕사 천불전 전소(12.29), 영주 관음사 불상 파괴(12.16)에 이어 14일 오후에는 대전 보문사(주지 현광) 대웅전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돼 1억1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보문사 대웅전 화재를 처음 목격한 김순화씨(67·공양주)는 "인기척이 들려 나가보니 만취한 남자가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다"며 "이상한 예감이 들어 대웅전 쪽을 바라보니 불길이 벽과 천장으로 번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화재현장에 있던 개신교인 고모씨(36)씨를 용의자로 불잡았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훼불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교계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처로 범인 검거는 고사하고 경·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한 촉구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종단 대책기구 상설화 △훼불대책 예산확보 △공직자 특정종교편향행위 처벌조항 신설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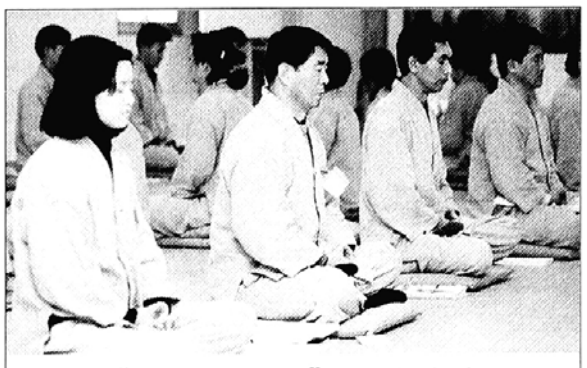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자월스님은 "훼불사건 근절을 위해서는 종교지도자들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훼불 문제를 중점 논의 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 관음사 도기스님은 "타종교 침해행위를 단순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발상 자체가 공권력의 종교편향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주 원명선원 대효스님은 "종교시설 파괴를 단순 폭력행위로 치부한다는 것은 그 특수성을 외면한 처사"라고 경찰과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해당 사찰과 공동 조사작업을 거친 뒤 수사당국과 국회 담당부서 등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조속한 사건해결을 범불교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며 "종교편향대책위를 범종단 차원의 상설기구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상훈 조사국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공직윤리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특정종교편향행위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종교 광신도들의 그릇된 선교형위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인식전환과 전 불자들이 훼불방지의 파수군으로 적극 나설 때 훼불사건 근절의 실마리는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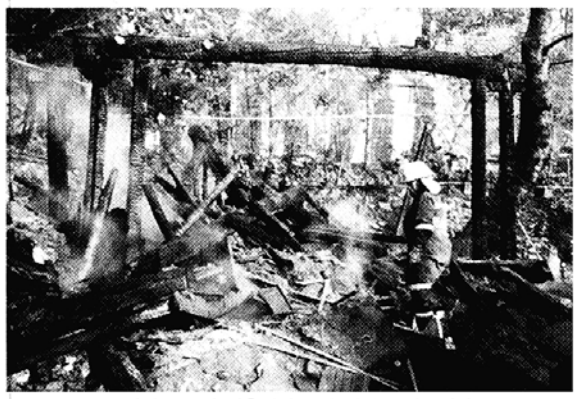


"번뇌를 씻자" 참선열기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대. 많은 불자들이 겨울수련회와 시민선방을 찾아 어지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곧추 세우기 위해 수행에 열중하고 있다.

17일~20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린 겨울 선수련회에는 아나운서 이계진씨를 비롯한 36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무한능력의 소유자인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번뇌를 씻어내기 위해 가부좌를 틀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에 열리는 무진법장사 주민선방, 매월 셋째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철야정진을 진행하는 선학원 시민선방 등 각 사찰과 신행단체에서 개설한 수련회와 시민선방에는 올 겨울에도 깨달음을 향한 불자들의 수행열기로 가득하다.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대전 보문사 대웅전이 14일 방화로 전소됐다.

조계종 새 포교사 257명 탄생

부산불교대 60명 '최다'

조계종포교원은 21일 제3회 포교사고시 합격자 2백57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불교대학에 통보했다. 연수 및 품수식은 3월초 1박2일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지난 해 11월 시행된 포교사고시에는 조계종에 등록한 35개 불교대학에서 5백18명이 응시, 49.8%의 합격률을 보였다. 수석합격의 영광은 경기불교대학을 수료한 서정탁씨(49)가 안았다. 〈인터뷰 4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부산불교교육대학으로 60명, 이어 동산불교대학 수료생 45명이 합격했다.

정성운 기자

석가세존 진신사리 친견대법회

2월2일 장충체육관

석가세존 진신사리 친견대법회가 2월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이건호 봉행위원장은 15일 "조계종사태로 사기를 잃은 재가불자들이 '부처님 닮아가기'를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리친견대법회를 봉행키로 했다"며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과 양애란보살이 참석해 증명 및 법어, 마정수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봉행위원장은 또 "이번 법회에는 지난 해 9월 미얀마에서 이운해 온 석가세존 진신사리 12과등 모두 64과의 사리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알림 본지는 '석가세존 진신사리 친견대법회'를 후원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대구보현사 유휴공간 신행단체에 무료개방

대불련등 10여단체 입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사찰이 유휴공간을 신행단체 사무실로 무료 개방하기로 해 도심포교의 새로운 전형이 되고 있다.

조계종 9교구본사 동화사 직할포교당인 대구 보현사(주지 지도)는 2월부터 대불련 대구지부, 파라미타 대구지부 등 10여개 신행단체에 사무실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보현사는 입주를 원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은 후 활동실적이나 장래성 등을 평가해 입주단체를 선별할 예정이다.

IMF사태로 사무실을 내놓거나 축소해야만 하는 신행단체들로서는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되고 있다. 신행단체들은 그동안 더부살이하거나 신행단 체장의 주택을 사무실로 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현사의 이같은 구상은 사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소규모 불교회관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데다 도심에 위치해 있어 포교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행단체간 정보교류 및 연계성 제고에도 한몫 할 것으로 기대돼 신행단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고 열린 사찰을 만들겠다는 지도스님은 "시민들에게 사찰을 24시간 개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며 "보현사를 수행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자리매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현사는 또 부설로 불교사회교육원도 개설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미교양강좌도 실시한다. 개신교의 YMCA와 같은 문화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 프로그램은 택견, 성훈따주기, 한지공예, 사물놀이 등 주로 전통문화강좌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불교산악인련 사단법인 추진

명칭 바꾸고 환경·복지사업도 참여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가 올해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명칭을 '대한불교산악인연합회'로 변경키로 했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는 21일 타워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비영리 불교신행단체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명칭변경과 회비를 책정하여 발전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관을 개정하여 환경 복지사업에도 참여키로 했으며 특별사업으로 추진중인 '한라에서 백두까지' 산행계획도 백두대간 연봉에 연등을 밝히는 것에서 도라지 심기로 변경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경영정상화 촉구"

불교TV 노조

불교텔레비전 노동조합(위원장 신동우)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영진의 정상화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비상경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경영진은 이에 대한 활동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영진과 이사회에 △1차 비대위 결의사항 준수 △대표이사 등기이전 지연에 대한 해명 △위기상황 타개책의 투명한 공개 △이사 출연금 납입 등의 성실한 이행 △인원감축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진각종 부산 낙동복지관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이사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했다. 진각복지회는 부산시 강서구청으로부터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고 21일 강서구청과 위탁체결식을 가졌다.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천4백평 규모로 어린이집, 예식장, 체력단련실, 도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오는 3월 개관될 예정이다.

한편 진각복지회는 이번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수탁을 시작으로 복지관 2~3곳과 어린이집 4~5곳을 새로 수탁하고, 자체 시설 2곳을 개설하는 등 올해를 복지문화정착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사업으로 스리랑카와 네팔, 북한돕기 구호사업과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을 위한 푸드뱅크(food bank) 운영, 장애인돕기 이벤트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뉴스 & 뉴스

승가원 법당 불상점안

승가원(원장 보각)은 강원도 횡성 종합복지타운 완공에 이어 28일 오전 11시 법당에서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점안식을 갖는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후원자들을 비롯한 불자와 원생들을 중심으로 천일기도입제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

사천왕사 '도시락보내기운동'

사천왕사(주지 성덕)가 '희망의 민들레 도시락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사천왕사는 11일부터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월~토요일 월계2동, 상계동, 수유동 등 5개동 결식학생 67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사천왕사가 겨울방학 동안 긴급구호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이 운동은 결식학생에게 자비실천사상을 전달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지도를 실시,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펼쳐지고 있다. 2월27일까지 계속된다.

도필선 기자

전국법사련 신년 하례회

한국불교전국법사연합회(공동대표 선진규 한정섭 정병조)는 2월 9일 오후2시 서울 동산교육회관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국내법사대회 개최 등 새해사업 계획 수립과 법사회 고문위촉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독거노인 115명에 후원금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23일 복지관 강당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1백15명에게 내복 75벌과 후원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매일신문과, 봉정암, LG기공 성신회, 독산동 원강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도필선 기자

2월7일 법사법위 품수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묘봉스님)은 2월7일 오후 2시 충정사에서 제7회 졸업 및 법사법위품수법회를 봉행한다. 5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이번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전원이 법사법위를 품수하고, 법홍스님(원효종 종정)이 특별 법문한다. 도필선 기자

동국대교수회 다시 농성

동국대 교수회(회장 유덕기)는 총장후보 선거 이후 중단했던 농성을 14일부터 재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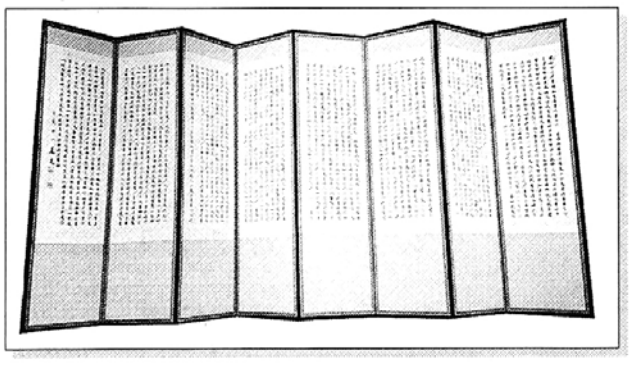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 송석구 총장이 차기총장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학교측이 학내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다시 농성에 돌입한다"고 송총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또 이날 불교병원 설계용역 수의계약설 등 학교운영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송석구 총장에게 보냈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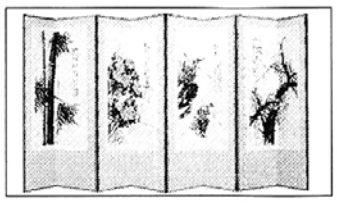
만사대길 대신통 불경병풍

· 법화경 8폭병풍(여래수량품제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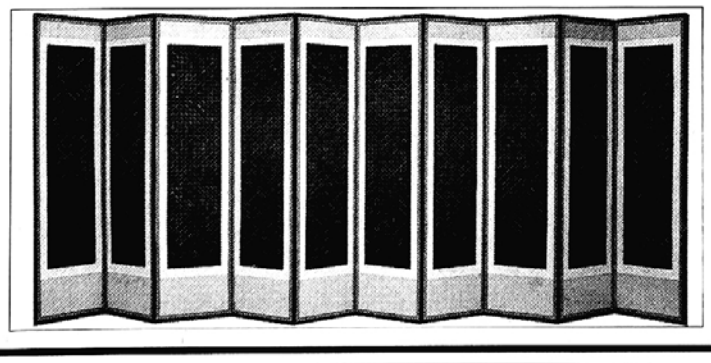


◀ 법화경사경 15년
(암도법사 친필 한정분)
후면: 성불도연화 林泉 화백 作
전시장가격 ~~₩1,320,000~~ · 특가: ₩680,000

▼林泉 화백 사군자 진품 병풍
후면:창곡선생 한지 · 특가: ₩580,000



· 금강경 金書10폭병풍



◀후면: 부처님일대기(金畵)
공단 양면 이중병풍
· 특가: ₩5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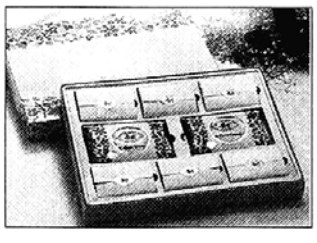
대를 물려도 뒤틀림이 없는 성보병풍입니다

불국기획

대표전화 (02)737-0048
공장전화 (0351)877-3540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